

투표 법안 절차

워싱턴주 헌법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라는 두 가지 직접적인 기본적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는 절차가 다르기는 하지만 법률제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주민들의 수중에 맡긴다는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

주민발의 절차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합니다. 즉, 유권자들은 법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발의의 유일한 한계는 주민발의를 통해 주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발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주민 주민발의 - 대주민 발의는 충분한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주에서 실시하는 다음 총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의됩니다.



대주의회 주민발의 - 대주의회 주민발의는 충분한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주의회 정기회에 회부됩니다. 회부된 후에 주의회는 다음 세 가지 조치 중에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주의회는 주민발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들의 투표 없이 법률로 제정됩니다.
- 2) 주의회는 주민발의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발의안을 주의 다음 총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의해야 합니다.
- 3) 주의회는 주민발의안의 개정안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정안과 원안을 모두 주의 다음 총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의해야 합니다.

등록 유권자는 누구든지 개인 자격이든 단체의 대표 자격이든 새로운 주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폐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주민 주민발의든, 대주의회 주민발의든) 주민발의의 자격을 갖추려면 후원자는 발의안 전문을 유권자들에게 회람시켜서 지난 정교 주지사 선거에서 주지사직에 투표한 투표 총수의 8%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에 부의된 주민발의안은 단순 과반수를 득표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60%의 득표가 필요한 도박 및 복권 법안은 제외).

주민투표

워싱턴주의 주민투표 절차는 주의회가 제안하거나 승인한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은 비상사태 법률, 즉 공공평화, 보건 또는 안전을 신속하게 보존하고 주정부 및 주정부의 기존 하부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 뿐입니다.

주민투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민투표 부의 법안 - 주민투표 부의 법안은 주의회가 유권자들에게 부의한 법안을 말합니다.



주민투표 부의 법률 - 주민투표 부의 법률은 주의회가 최근에 통과시켰지만 유권자들이 서명을 통해 청원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의된 법률을 말합니다.

등록 유권자는 누구든지 개인 자격이든 단체의 대표 자격이든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권자의 투표에 부의할 것을 청원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사태 법률은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상기 설명 참조).

주민투표 법률의 주민투표 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후원자는 해당 법률의 전문을 유권자들에게 회람시켜서 지난 정교 주지사 선거에서 주지사직에 투표한 투표 총수의 4%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에 부의되는 주민투표 부의 법안 또는 법률은 단순 과반수를 득표해야 법률로 제정됩니다 (60%의 득표가 필요한 도박 및 복권 법안은 제외).

(주의: 상기 정보는 주민발의 및 주민투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법률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규정은 워싱턴주 헌법 제 2조 1항, RCW 제 29A.72장입니다. 이들 조항을 온라인으로 보려면 법률집 개정부서 (Code Reviser)의 웹사이트 <http://slc.leg.wa.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